

# 중형 굴삭기의 새기준 캐터필러 325CL !!

특별 판매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모델명 : CAT 325CL (28.7TON / 1.3M<sup>3</sup>)  
 할부기간 : 최장 60개월  
 적용금리 : 8.5% (36개월 기준)  
 적용기간: 2004.6.30한 계약분에 한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점 및 영업소로 문의 바랍니다.

# 헤인

www.haein.com

| 2004 | SPRING





해가 뜨고 지는 게 중요하진 않아. 오늘 일이 있다는 것으로 족해...

글 · 사진 함영식

## Contents 2004 Spring

28 > 24 > 22 > 20 > 18 > 16 > 12 > 10 > 06 > 04 >

독자 나눔터

헤인 뉴스

협력사 탐방

헤인 속 이야기 - 특별한 인연

최고의 장비

안전현장 관리 이렇게

소식통·정보·보통 - 입제동향

맛있는 여정

멋과 맛 - 즐거운 인생

세상 돌보기



(주)헤인 광주지점 조덕형 소장과 기한건설(주) 최성현 과장 (왼쪽부터) \*자세한 이야기는 p20~21로 이어집니다.

2004년 봄호(통권 245호) | 2004년 4월 25일 발행 | 1993년 10월 20일 등록(등록번호 바-2006호) | 발행 겸 편집인 원경희 발행처 주식회사 헤인  
(www.haein.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02-3498-4500) 기획 및 디자인 편집디자인실 외곽(02-2269-1247) 인쇄 대로인쇄(02-2278-0773)

## ‘몸짱’ 되려다 ‘몸팡’?

● 남자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기획의도로, 그리고 한물 간 여자 연예인들의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수요공급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바람을 일으킨 연예인 누드열풍. ‘이승연 위안부 누드 사진’으로 그 기세가 잠시 주춤해진 듯 하지만 여전히 연예인 누드는 점차 다양한 수입콘텐츠를 찾아가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시청률 40%대를 넘나들며 많은 화제를 낳았던 SBS드라마 <천국의 계단>은 권상우라는 근육질의 배우를 순식간에 톱스타로 부상시켰다. 권상우는 신성일 이후 최근의 장동건, 원빈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얼짱’들이 주름잡던 남자스타의 계보에 ‘몸짱’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그 이름을 올리면서 그동안

안 외모에 무관심해왔던 남자들의 옷통을 벗겨 거울 앞에 세워놓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심지어 일산의 평범한 학부형이었던 어떤 아줌마는 사진 한 장으로 일약 인터넷스타로 발돋움하며 최근 공중과 방송에 고정출연까지 하고 있다. ‘정다연’이라는 이름보다 ‘몸짱 아줌마’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진 이 여인은 몸 하나(?)로 어느날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연예인들의 경우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했다.

바야흐로 지금은 ‘몸짱’의 시대가 되어버린 듯하다. 최근의 문화현상으로 나타난 연예인 누드열풍, 권상우 신드롬, 몸짱 아줌마 출현 등은 모두 몸에 대한 관심을 부추겼고 또 그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연예인 누드 열풍은 10대와 20대의 젊은 여성들을, 권상우 신드롬은 남자들을, 몸짱 아줌마 출현은 3, 40대 주부들을 헬스클럽으로 불러들였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성에게 ‘성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유에 집착되어 있는 것 같아 조금은 걱정이다. 물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이성에게 성적 긴장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문제와도 직접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행복한 삶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보다 우선시된다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경계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몸짱이 되기 위해 땀을 쏟다가 인대 파열이나 골절, 근육 손상 따위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몸짱’만을 겨냥하여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부작용들이 심심찮게 나타날 수 있다

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작용들을 피하고 균형있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고른 근육발달이 가능할 수 있는 몸상태를 만들고 나서 근육을 키우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무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비로소 진정한 ‘몸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운동과 거리가 멀었거나 당뇨가 있고 신장, 심장 등이 약한 사람들, 특히 40대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멋진 근육과 아름다운 곡선에만 매달린다면 힘들게 유지해온 건강에 자칫 적신호가 울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는다. 근육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다. 특정 근육을 키우는 데 몰두하다 보면 몸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근육량도 나이에 맞게 적당히 있는 게 좋다. 근육량이 지나치면 관상동맥질환 등 심장병을 일으키거나 근육 위축으로 몸이 되레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뭐든 과하면 좋지 않은 것 아닌가.

선풍리 ‘몸짱’이 되려다 그야말로 몸도 망치고 건강도 잃는 ‘몸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예인 같은 몸매를 만들겠다는 지나친 욕심과 단시일 내에 성과를 보고야 말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만 비로소 권상우나 몸짱 아줌마가 부럽지 않은 멋진 몸을 갖추게 되리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몸짱’의 시대,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남들의 멋진 몸을 감상하며 감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간파한 채 무리한 과욕으로 병원신세를 지고 있을 것인가,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생활습관과 적당한 운동으로 이 세대의 진정한 ‘몸짱’이 될 것인가. 글 김광일(자유기고가)





꽃과 남자? 섬세한 손길의 플로리스트와 몸짱(?)  
인 만능 스포츠맨?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  
면서 또 어우러지는 상반된 성향 때문에 더 매력적  
인 이 사람, 남성 플로리스트 최원창씨를 이미 봄빛  
이 완연한 한 플라워샵에서 만나보았다.



● 공수부대 출신이며 패러글라이딩, 웨이크보드, 레포츠 등을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 한때 태권도 사범이었던 최원창 씨는 어찌보면 그의 생활과는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이 드는 '플로리스트' 다. 플로리스트란 꽃을 용도에 맞게 적합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연출하는 전문인, 넓은 의미로는 꽃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을 통틀어 말한다.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과 함께 유쾌한 환경호르몬을 다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물(꽃)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졌는데, 이에 주목받고 있는 직업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최원창 씨는 소위 한창 뜨는 직업을 택해 하루아침의 성공을 꿈꾸었던 것은 아니다. 93년, 우연히 꽃집에서 일하게 된 것을 계기로, 부케(지금은 결혼식장의 신부 부케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원래 꽃다발 전체를 이야기한다)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소박한 꿈에서 비롯된 플로리스트의 길은 겉보기만큼 화려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원래 아름다운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꽃, 그 안에는 그 꽃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들었던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은 고된 작업과정이

## 꽃을 디자인하는 남자

플 로 리 스톱 최 원 창 씨

있다는 거죠. 겉으로 화려해보인다고 막연히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고된 노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즐기려면 무엇보다 꽃을 좋아해야 해요.”

꽃 전문잡지 '월간 플로라'에 매달 꽃 상품디자인을 게재하는 일부러 신부의 웨딩부케, 웨딩카 장식, 행사장의 꽃 장식, 매장의 디스플레이, 장례 단상,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개인주택의 실내 조경까지 최원창 씨의 솜씨는 다양한 장소, 다양한 상황에서 발휘된다. 몇 시간 정도 소요되는 작업이 있는가 하면, 여러 날 밤샘 작업을 견뎌야 할 만큼 고단한 작업이 지속될 때도 부지기수다.

“플로리스트가 되려면 꽃을 좋아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꽃을 비롯한 식물 전반에 대한 관심과 지식, 마르지 않는 아이디어와 섬세한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해도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꽃이 없다면 도처에 널린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연습할 정도로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디자인 작업물이 상대방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간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최원창 씨가 구사할 수 있는 디자인 스타일은 다양하다. 그래도 굳이 최원창씨가 추구하는 스타일을 이야기하면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꽃을 돋보이게 하려면 길포장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요즘은 사람들도 가능한한 장식을 최소화하고 꽃다발 자체를 살린 '핸드타이드'를 선호하는 추세다.

신부 부케 하나를 만들더라도 신부의 키, 체형, 개성에 맞춰 부케의 모양을 달리 하는 사람들이 플로리스트이다. 꽃 한송이, 꽃다발 하나에도 받는 사람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이 직



#### 꽃에 어떤 효능이?

**매 화 :** 맛이 달고 성질이 차며 독이 없다. 폐를 깨끗하게 해주고 목과 코를 축축하게 해줘 감증을 그치게 한다. 침을 만들어 더위를 없애 주고 답답함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

**국 화 :** 단맛과 쓴맛이 나고 성질은 차다. 열을 내리고 풍(風)을 활하게 하며 간을 편안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해독 작용이 있다. 여름 감기, 두통과 발열, 어지러움, 눈의 충혈,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

**목련 :** 맛은 맵고 따뜻한 성질이다. 담을 없애고 폐에 이롭고 기(氣)를 조화롭게 한다. 겨울 감기, 두통, 축농증, 진한 콧물이 흐를 때 꿀에 절여 먹으면 좋다.

**복숭아꽃 :** 맛이 쓰고 성질은 평하며 독이 없다.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배변을 도와주는 효능이 있다. 부종, 무좀, 대소변을 잘 못 볼 때, 폐경 등에 좋다. 돼지고기와 함께 만두나 빵을 만들어 먹어도 좋다.

**호박꽃 :** 맛은 달고 찬 성질이다. 종기의 독을 치료하고 황달, 이질, 기침을 치료해준다. 고기와 함께 볶아서 먹으면 달고 찰기가 있으며 부드럽고 매끄러워진다.

**장미 :** 맛은 달고 따뜻한 성질이며 독이 없다. 폐와 비장에 이롭고 간과 쓸개에 좋으며 나쁜 기를 없앤다. 기를 다스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세를 풀어 주며 피를 고르게 하며 멍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

**해바라기 :** 풍을 해소하고 눈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얼굴이 자주 부을 때 좋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강하시키는 작용을 한다.



업에 최원창씨가 남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

“여성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처음에는 쑥스럽고 불편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두꺼운 가면을 하나 쓰게 되었어요. 허허. 오히려 남자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많아요.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보면 톱질, 용접 등 부수적인 작업들이 주 작업이 되기도 하고, 밤샘 작업이 많다 보니 이를 버텨낼 체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남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디자인의 힘이 다르죠. 보통 여성 플로리스트보다 더 섬세한 남성 플로리스트도 많은데, 제가 좀 그런 편입니다.”

누구보다 스포츠에 열광하는 그지만 여성 플로리스트에 비해 바 아닌 섬세함을 갖춘 최원창 씨,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두툼한 손이 새삼 다르게 보인다. 그는, 작업이 일단 시작되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너무 골몰한 나머지 늘 녹초가 되곤 한다. 그러나 완성된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금세 또 행복해진다. 자신이 직접 만든 꽃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의 기쁨만큼이나 누군가로부터 꽃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최원창 씨는 그야말로 꽃에 흠뻑 빠진 남자다.

꽃에 관한 한 전문가인 최원창 씨가 가장 멋진 꽃 선물로 귀뜸해준 것은, 평범하나 간과하기 쉬운 체크사항이었는데 다음 아님 상대방이 제일 좋아하는 꽃을 선택하는 것. 화려한 길포장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것이라고 했다.

지금, 남도에서는 동백, 산수유, 매화도 이어지는 봄꽃 소식이 들린다. 봄을 만끽하는 데 봄꽃 구경만한 것이 있을까. 몸은 비록 이곳에 있어도 마음만은 봄의 향연으로 향하는 듯 마냥 들뜬다.

글 조은아 사진 이승혁

# 쫄깃쫄깃 담백한 맛

목포 명물, 세발낙지



● 남도에서는, 소가 새끼를 낳거나 여름에 더위를 먹고 쓰러졌을 때 큰 낙지 한 마리를 호박 앞에 써서 던져주는데 이를 받아 먹은 소가 벌떡 일어난 정도로 원기 회복에 좋다고 하여, 예부터 산후 조리용 음식으로 낙지를 넣은 미역국을 최고로 여겼다고 한다. 목포의 명물, 세발낙지는 열은 바다나 돌 틈, 진흙 속에서 사는 ‘발이 가는 낙지(가늘 細)’를 말하는데, 스테미너 식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빛깔부터 푸르스름한 기운이 도는 게 다른 곳의 낙지에 비해 연하고 부드러운 씹는 맛이 그만이란 다. 그래서 서울 근교에서 맛볼 수 있는 흔한 낙지요리를 제쳐두고 우리는 목포로의 여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튼 맛있는 음식을 더 맛나게 먹으려고 주린 배를 잡고 도착한 곳은 목포에서도 낙지요리로 소문난 ‘독천식당’. 이곳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매년

열리는 ‘남도음식대축제’에 참가해 향토음식점으로 인정받은 바 있고, 방충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되어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낙지 전문 요리점이다. 빨판을 넓혔다 좁혔다 연신 꿈틀대는 산낙지는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독천식당 최삼규 사장이 추천하는 낙지비빔밥과 연포탕을 마주했다. 맛의 본고장답게 굴젓, 전어, 나물 등 맛깔스런 반찬들이 곁들여져 한 상 차려진다. 슬금슬금 군침이 돈다.

콩나물, 미나리, 무채 등과 함께 양념장에 버무려져 나온 낙지비빔밥은 얼핏 보아선 도심에서 맛볼 수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이나 우선 이 요리의 주가 되는 낙지의 양만 따지더라도 후하다. 낙지를 꽤나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도 아쉬운 감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만족스럽다. 그 맛은 아이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만큼 맵지 않다. 너무 매운 나머지 콧물이 절로 나오고 헛바닥이 화끈거렸던 무교동의 낙지

‘목포는 항구’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다. 전라도 음식이 맛깔스럽기로 소문난 것은 굳이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남도의 끝자락, 갯내음 물씬 나는 목포 지역을 이야기하자면 ‘낙지’를 빼놓을 수 없다. 목포에서 맛볼 수 있는 ‘세발낙지’는 근방의 무안이나 신안 갯벌에서 잡아 올린 것으로, 서남 해안의 썰 자체가 워낙 좋고 기름지기 때문에 여기서 맛의 차이가 벌어진다.

를 떠올리자면 약간 심심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낙지요리는 낙지 고유의 담백한 맛을 살려 양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비결이라고 했으며, 그러니 갖은 양념은 생략하고 푹고추, 쪽마늘과 된장에 참기름 몇 방울만으로도 낙지 고유의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맛을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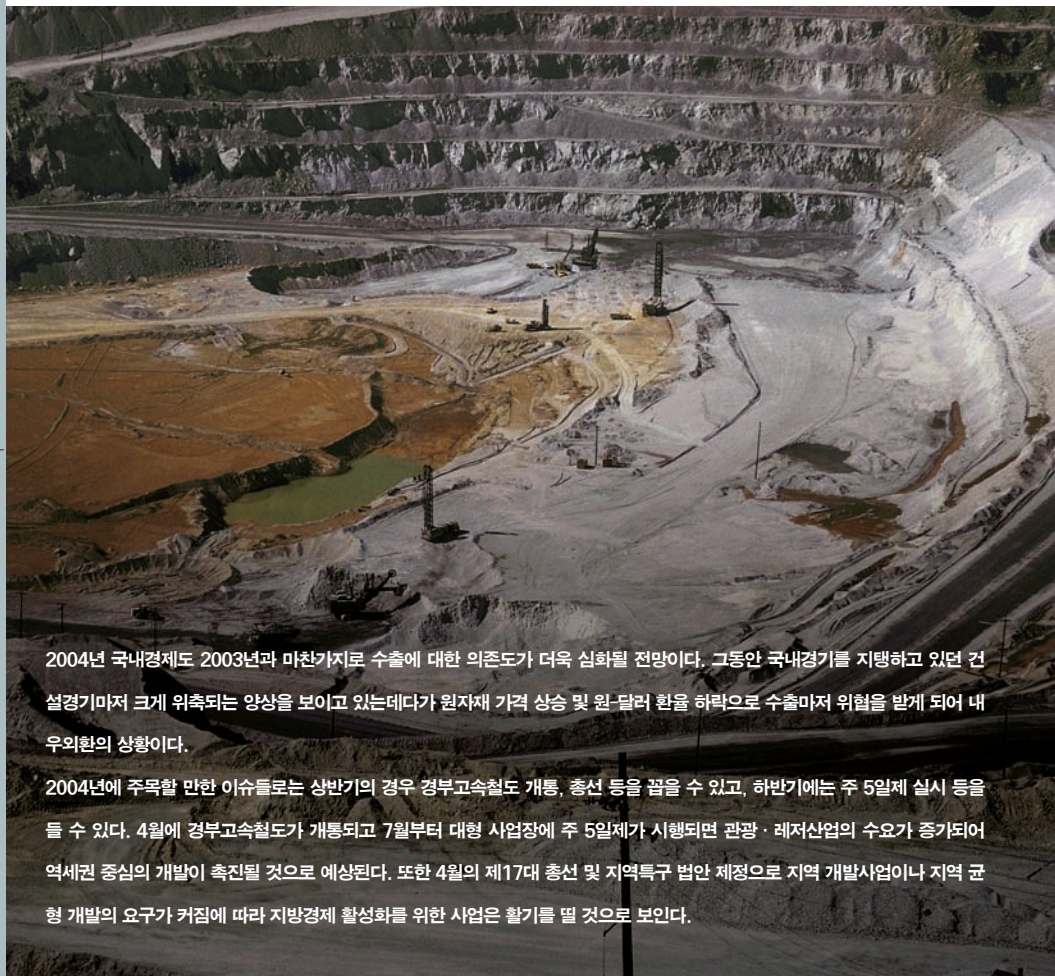
독천식당의 사장이 적극 추천하는 연포탕은 낙지만 맑게 끓여낸 탕으로 국물맛이 담백하면서 시원해 해장국으로 제격이다. 물에 살짝 데쳐 낸 낙지를 하나씩 건져 올려 잘근잘근 씹는 재미가 좋다. 적당히 씹히면서도 결코 질기진 않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한 낙지비빔밥에 뒷맛이 칼칼한 연포탕을 국물로 곁들이니 음식궁합도 제법 잘 맞는 것 같다. 독천식당에서는 이밖에도 낙지와 쇠갈비를 함께 넣어 끓인 갈낙탕, 낙지전골, 낙지볶음 등 낙지에 관한 갖가지 요리를 입맛대로 맛볼 수 있다.

주말에는 외지 손님이 대부분인 이곳의 인기비결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낙지 가격파동에 아랑곳 없이 20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가격으로 손님을 맞이한 것. 최근에도 낙지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그 가격대로, 그 재료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미식가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흔치 않게 만나보는 ‘맛난 음식’에 마음이 흡족하다. 이럴 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배를 두둑이 한 후 비로소 남도의 정취에 젖어 바닷가로 향한다. 도심의 매캐한 연기 대신 비릿하고 짭 갯내음이 코끝에 감돈다. 목포는 항구다.

독천식당 찾아가는 길 : 목포역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두 블록, 길 건너 대신생명 옆골목으로 들어가 두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조금만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독천식당이 보인다. Tel 061-242-6528

글 조은아 사진 이승혁

# 2004년 건설경기 및 골재업 전망



2004년 국내경제도 2003년과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경기를 지탱하고 있던 건설경기마저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마저 위협을 받게 되어 내 우위환의 상황이다.

2004년에 주목할 만한 이슈들로는 상반기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개통, 총선 등을 꼽을 수 있고, 하반기에는 주 5일제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4월에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고 7월부터 대형 사업장에 주 5일제가 시행되면 관광·레저산업의 수요가 증가되어 역세권 중심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월의 제17대 총선 및 지역특구 법안 제정으로 지역 개발사업이나 지역 균형 개발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 2004년 건설경기 성장세 크게 꺾일 전망

2003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넘어선 건설수주가 금년에는 90조원대 아래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간 건설수주를 주도하던 주택사업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둔화되면서 건설시장의 열기가 급속히 식고 있다.(그림1) 2004년 1월의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용 건축이 24.4% 감소하면서 건축수주가 12.6% 줄어들었다. 특히 주택경기는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는 40% 이상 감소하였다. 2003년 1월에 주택경기가 호황이었던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이다. 분양가 원가 공개, 소형 평형 의무비율 강화, 분양권 전매 금지, 다주택 보유 중과세 등으로 청약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분양을 연기하는 주택업체들이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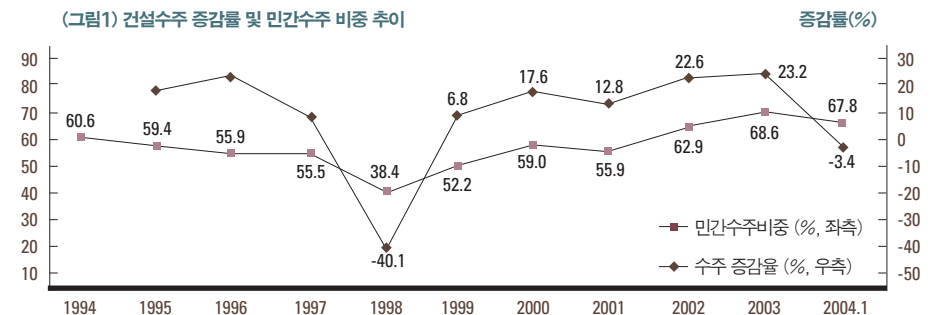
게다가 중국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철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환경관련 단체들과의 마찰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는 등 건설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건설현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서 건설기업 자체비용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체비용 체감지수는 지난해 12월 73.4였으나 금년 1월에 57.1로 낮아졌고 2월에는 30.2로 더욱 낮아졌

다. 3월 자체비용 전망지수도 25.9로 체감경기 조사 이래 가장 나쁘게 나왔다.(그림2)

2004년은 민간 주택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전체 건설수주가 13.1% 감소한 89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부문은 수해복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총선 실시 전의 지역 개발사업 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SOC예산의 실질적인 감소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실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등으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은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재건축사업 등 민간 건축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20%의 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사업은 2003년 8월 이후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기존 재건축사업 단지도 안전진단 강화, 후분양제 실시, 일반주거지역 중 세분화에 따른 용적률 규제 강화 및 명의변경 금지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커졌다.(표 1)

토목 부문은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관심 고조와 경기 회복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 등의 증가 요인과 최저가 확대 및 턴키사업 심사기준 변화 등의 축소 요인이 대등하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투자사업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연간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20~50위권의 업체들도 민자사업에 관심을 보이

(그림1) 건설수주 증감률 및 민간수주 비중 추이



(표 1) 2004년 건설수주액 전망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수주액 (조원, 경상가액)							
공공	30.85	12.81	19.41	32.22	12.32	21.19	33.51
민간	52.30	36.29	33.94	70.23	28.68	26.84	55.52
토목	28.90	13.51	18.44	31.95	12.29	21.71	34.00
건축	54.25	35.60	34.90	70.50	28.72	26.32	55.03
주거	31.23	24.18	20.97	45.15	18.49	15.84	34.33
비주거	23.02	11.42	13.93	25.35	10.22	10.48	20.70
계	83.15	49.10	53.35	102.45	41.00	48.03	89.03
증감률 (전년 동기비, %)							
공공	3.2	14.5	-1.3	4.4	-3.8	9.2	4.0
민간	37.8	37.1	31.4	34.3	-21.0	-20.9	-20.9
토목	11.2	36.8	-3.1	10.5	-9.0	17.7	6.4
건축	29.7	28.1	31.9	30.0	-19.3	-24.6	-21.9
주거	31.4	40.7	49.3	44.6	-23.5	-24.5	-24.0
비주거	27.4	7.8	12.1	10.1	-10.5	-24.7	-18.3
계	22.6	30.4	17.2	23.2	-16.5	-10.0	-13.1

주 : 2004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고 있으며, 도로 건설의 민간 제안사업이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축 부문은 지난해의 재건축사업 특수에 따른 반락(反落) 효과가 작용하여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주거용 건축 부문은 신규 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됨으로써

신규 수주 공백이 불가피해져 연간 21.9%의 큰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 물량을 연간 8만호에서 10만호로 확대함에 따라 공공 건축 부문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 부문도 분양 전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착공

후에 분양하도록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 물량이 줄어들면서 18%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골재업 동향과 전망

2004년 1월 골재와 철근 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레미콘과 철근은 감소하였다. 환경부의 '섬이 육지'라는 유권해석으로 인해 웅진군이 '2004년 및 2005년 바다골재 채취허가 불허방침'을 세운 바람에 골재대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대상이 100만㎡에서 50만㎡로 축소되고 대상지역도 해안선으로부터 10km 이내로 대폭 강화된 바 있는데 이번 유권해석으로 국내 바다골재 채취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웅진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바다골재 채취 불허 움직임이 일어 철강대란으로 곤혹을 겪는 건설업체에겐 설상가상의 형국이 되고 있다.(그림3)

급기야 인천 앞바다의 골재채취 불허 방침이 철회되기는 하였으나 정상 조업까지는 10일 이상 소요되고 그간 재고물량이 동나는 바람에 건설현장마다 모래 및 자갈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철강대란에 겹친 골재대란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건설기성 및 건설투자도 하강하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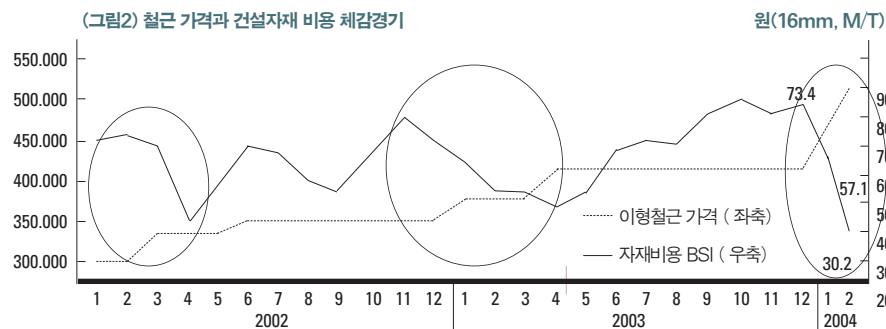
### 건설업계와 전자재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

올해 건설수주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건설기성 및 건설투자는 기존 수주잔량이 충분하여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전자재업체 등 건설관련 유관산업들의 경기도 당분간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재 투입 원단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자재업체는 견고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건축 부문에서는 층간 소음규제,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설, 중수도 설치, 발코니 확장 공사 등이 늘면서 철근, 레미콘 등의 투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토목 부문에서도 도로의 선형이 중시되고 있고 최근 건설되는 도로 및 철도들이 산악지형 등에 건설되면서 터널과 교량이 필요한 구간이 많아짐에 따라 시멘트, 레미콘 및 철근 등 전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04년은 건설수주 물량 감소 및 수익성 저하, 전자재 가격 상승, 소음 및 공기 등 환경기준 강화 등으로 건설업계는 원가절감 노력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전자재업체는 적절히 대응하고 눈앞의 이해타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 가운데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는 구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외적인 환경의 도전과 변화를 기회로 바꾸는 건설적인 협력방안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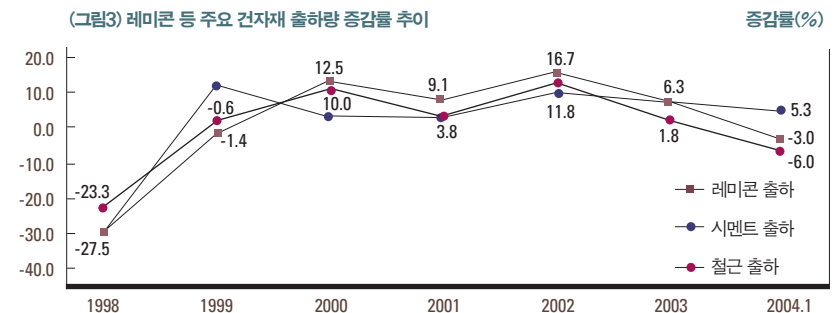
글 백성준(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림2) 철근 가격과 전자재 비용 체감경기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 기준)

(그림3) 레미콘 등 주요 전자재 출하량 증감률 추이



# 와이어로프(Wire Rope)

## 안전하게 사용하기

### 와이어로프 안전계수와 안전하중

와이어로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계수와 안전하중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text{안전계수} = \frac{\text{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text{와이어로프 1본에 대한 하중의 최대치}} \geq 6$$

$$\text{안전하중} = \frac{\text{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text{안전계수 (6)}}$$

#### 종별 절단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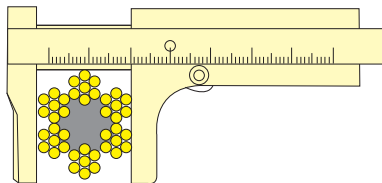
종별	비고
E종(135kg/㎜ <sup>2</sup> )	비도금
G종(135kg/㎜ <sup>2</sup> )	도금(도금후 신선선을 포함)
A종(135kg/㎜ <sup>2</sup> )	비도금, 도금(도금후 신선선을 포함)
B종(135kg/㎜ <sup>2</sup> )	비도금, 도금(도금후 신선선을 포함)
C종(135kg/㎜ <sup>2</sup> )	비도금, 도금(도금후 신선선을 포함)

**절단하중** : 동일경, 동일구조에서 소선의 인장강도 종별에 따라구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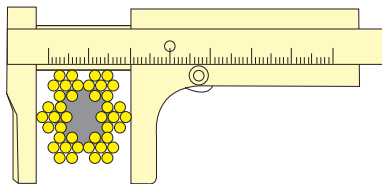
### 와이어로프의 직경 측정 방법

와이어로프의 직경을 잴때는 (그림2)와 같이 모든 스트랜드를 포함하는 외접원의 지름을 측정해야 한다.

(그림 1) 틀린 방법



(그림 2) 옳은 방법



### 와이어로프 관리법

와이어로프는 여러 개의 강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과 관리 방법 등에 따라 성능에 이

무거운 자재 등을 옮기는 데에 쓰이는 와이어로프(Wire Rope)는 다수의 강선으로 구성되어 유연하고 강한 것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중심(Core)과 이를 둘러싼 여러 개의 스트랜드(Strand)로 크게 구별되는데, 스트랜드의 수는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 3~8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트랜드를 구성하는 강선(Wire)의 수는 로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배열된다. 때문에 용도와 중량을에 맞는 와이어로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량물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몹시 높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 (1) 손상방지법

- ① 과하중을 걸어 올리지 말고 바른 각도로 달아올린다.
- ② 로프가 상하기 쉬운 곳은 필히 나무 받침대를 대어 사용한다.
- ③ 고열물은 가능한한 열을 식혀서 사용하고 체인을 사용한다.
- ④ 1본 걸어 올리는 가능한 피한다.

#### (2) 정비법

- ① 사용 중인 로프는 브러시로 오물, 녹, 모래 등을 털고 반드시 기름을 바른다.
- ② 비, 물 등에 젖으면 건조시켜 기름을 바르고, 먼지가 많은 곳은 먼지를 털고 기름을 칠하여 보관한다.
- ③ 꼬임(Kink)이 발생된 곳은 즉시 바르게 펴준다.

#### (3) 점검법

- ① 로프의 1차 꼬임 길이 중 소선 총본수의 10% 이

상 소선이 단선된 것은 사용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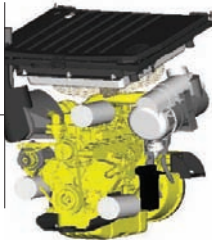
- ② 소선 총본수의 5% 이상이 집중 단선되었으면 사용할 수 없다.
- ③ 로프의 표면에 녹이 슨 정도가 요철이 생겨 부식된 것은 강도가 50% 이하로 저하된 것이며 이러한 로프는 충격하중에 대단히 위험하다.
- ④ 마찰, 전기 및 가스 용접에 화상을 입은 로프는 소선부터 절단되므로 명확히 상처가 있는 것은 사용치 않는다.
- ⑤ 1본의 Strand가 부상되어 전체의 Strand보다 길게 되면 절단하중이 약 17% 감소한다.
- ⑥ 심강이 절단된 것, 밖으로 튀어나온 로프는 수명이 약 10% 감소되므로 사용치 않는다.
- ⑦ 꼬임(Kink)이 된 것은 바르게 잡아도 절단하중이 20% 감소된다.
- ⑧ Eye Splice 말단처리법으로 가공된 것 중 각 Strand가 바르게 삽입되지 않은 것이나, Strand가 완전히 삽입되지 않고 풀려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글 김유백(건설안전협의회 회장)

# 제2의 도약을 꿈꾸는 B-시리즈 스키드스티어로더



캐터필라 장비의 성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 설계의 기본은 철저하게 운전자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스킵스티어로더와 같은 작은 장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 국내시장에 출시되어 뛰어난 성능과 정비 편의성, 무엇보다도 조이스틱 타입의 편리한 운전방식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았던 캐터필라 스킵스티어로더가 꼭 4년 만인 2004년 상반기부터 B-시리즈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 점점 강화되고 있는 국제 배기가스 기준에 적합한 엔진과 각종 편의사양으로 무장된 B-시리즈 스킵스티어로더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도록 하자.



## 1) 제 3세대 엔진

전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진 배기가스의 국제기준인 Tier II와 EU Stage II에 적합한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여 친환경적인 장비로 거듭났으며 모든 장비(216B 제외)에 터보차저를 부착하여 엔진의 효율과 출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였다.

A-시리즈	엔진	순마력	B-시리즈	엔진	순마력	상승율
216	3024C	48	216B	3024C	49	2%
226	3034	54	226B	3024C T	57	6%
236	3034	59	236B	3044C DIT	70	19%
246	3034 T	74	246B	3034C DIT	78	5%
248	3034 T	74	248B	3034C DIT	76	3%
252	3034	59	252B	3034C DIT	70	19%
262	3034 T	74	262B	3034C DIT	78	5%

T: 터보차저 엔진, DIT: 직접분사 터보차저 엔진

## 2) 운전환경

인간중심의 설계에 기반을 둔 안전성, 정비성, 편의성이라는 핵심사항 개선으로 인간의 삶에 더욱 친숙한 장비로 거듭났다.

- A. 좌우측으로 작업시야를 더욱 넓혀 작업의 안정성을 더했다.
- B. 기존보다 실내공간을 10% 이상 넓혀 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하였다.
- C. 청소하기 편리하도록 좌우 유리문의 탈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D. 후방 유리를 더욱 크게 디자인하여 후진시 안정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
- E. 컵홀더 (기본사양)
- F. 12V 소켓 (기본사양)
- G. 실내 후방 거울 (기본사양)
- H. 작업장치 조작이 편리하도록 설계된 신형 조이스틱
  - 연속동작 버튼 장착 (전모델)
  - 작업부하에 따라 유압량을 조절할 수 있는 조그셔틀 조이스틱 (248B)

## 3) 최소화 - 최적화 설계

- A. 전기 및 유압라인 최소화 디자인 - 정비 편의성 향상
- B. 전체 부품 수의 최소화 - 정비비용 절감 효과 기대
- C. 모든 유압라인의 IN BODY - 외부 충격으로부터 파손 방지

## 4) 기타 개선사항

- A. 부식방지 E-코팅 페인트 채택
- B. 교환이 더욱 편리하도록 필터류 재배치
- C. 정품 에어컨 옵션(216B 제외)
- D. 더욱 커진 6개의 공기 송풍구(히터 및 에어컨 장착시)

그밖에도 운전자들을 위한 작은 배려들은 장비의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그러하듯이 장비도 결국은 인간을 닮아가는 끝이 없는 진화물인 것이다. 스킵스티어로더와 같이 현장에서 숨쉬 틈조차 없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는 장비는 운전 편의성이 곧 생산성을 의미한다. B-시리즈 스킵스티어로더는 그런 의미에서 고객을 만나고 싶어한다. 하루종일 피로에 지쳐 귀가하는 당신의 모습 뒤에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 사진 전상윤(헤인 / 장비마케팅팀)



## 헤인 장비서비스, “딱 지금처럼만” 기안건설(주) 이영길 사장



이영길 사장과 (주)헤인 광주지점 조덕형 소장(왼쪽부터)

지금 전남 나주에서는 시 최대 규모의 골프장 및 위락시설 조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안건설(주)는 이 골프장 건설의 첫 기반을 다지는 토공공사를 맡았다. 우리가 현장을 찾은 날 하필, 며칠 전까지 포근하던 날씨가 꽃샘추위로 돌연 스산해졌고 추적추적 내리는 비까지 가세해 현장의 고지대에 올라서 땀띠부터 매서운 칼바람에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기안건설(주) 이영길 사장



● 기안건설은 토공,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 포장공사에 종사해온 건설종합회사로, 작년 11월부터 중흥건설이 발주한 골프장 성토공사를 진행 중이다. 골프장의 전체 규모는 72만평, 터공사만 하더라도 적어도 2년 여가 소요될 것이라고 기안건설의 도목부 최성현 과장은 말했다.

현장에서 직접 장비 관리 및 기사 관리를 맡고 있는 최 과장은 장비 및 기사 관련 애로사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듯했다.

“현장 관리자들과 기사들과의 관계는 작업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직적인 관계다 보니 항상 마찰이 있기 마련이죠. 또 작업 효율성과 바로 직결되는 새 장비의 필요성은 언제나 절실합니다.”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안건설 이영길 사장. 이 사장은 전국 곳곳에 있는 작업현장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다 보니 직원들이 얼굴 보기도 힘든 사장님이지만, 그러하기에 누구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작업효율성이 가장 우선입니다. 생산성을 고려하다 보니 캐터필라 장비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11월에 헤인과 첫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지금의 골프장 작업 현장에서만 캐터필라 장비 14대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 365BL과 345BL을 포함해 신장비가 5대입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좀 들더라도 장비는 모두 신형장비로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신형장비가 연료 소모가 적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곧 기름값이 오른다고 발표된 마당인데, 기존 구형장비를 쓰는 것은 당장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이익인 것 같지만 앞으로 버려질 비용을 생각할 때는 더없이 큰 손실이죠. 생산성도 마찬가지구요”

외국에서 들여온 캐터필라 장비다 보니 다소 우

려했던 장비관련 서비스 처리도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신속한 일 처리로 인해 괜한 기우였음을 느낀 이 사장은 헤인에 아주 만족스럽다며 ‘딱 지금처럼’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말한다. 이 사장은 특히 헤인의 장비 기사 수급 및 관리에 만족스러워 하며 신뢰감을 보였다.

“장비 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사람 관리가 참 어려워요. 기사 한 명이라도 갑자기 빠지게 되면 현장 매출에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어요? 헤인에서 기사 수급 및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니까 장비기사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자사 장비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스스로 장비 관리에도 신경을 쓰니까 작업효율성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헤인에서 장비를 임대하고 장비기사까지 수급 받는 것이 우리로서는 사업상 큰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헤인이 물론 회사 대 회사의 관계로 만났지만 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 모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듭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헤인 광주지점 조덕형 소장은 사장님 같지 않은 편하고 소탈한 모습이 늘 인상적이었으며 앞으로도 장비를 팔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파는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겸손을 표한다. 이 사장은 예의 그 소탈한 웃음을 보이며 혹시 함께 일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서운함도 고객과 영업사원이 아닌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해결 방안을 늘 조율해나가고자 약속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때론 오해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깊어지듯 기안건설과 헤인의 관계도 서로 다소 아쉬운 점을 조율해가는 데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_ 조은아 사진\_ 이승혁

## 오래 묵힌 술처럼 향기로운 동반자 동아디젤



술은 오래될수록 맛과 향이 깊어진다. 차곡차곡 쌓이는 세월의 무게를 비결 삼아 쉽게 흥내 낼 수 없는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비단 술뿐만 아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의 오래된 관계는 '돈'이라는 현실적인 척도를 뛰어넘어 불경스러운 보일 정도로 고귀한 것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싸나이들의 고장'인 부산에서 소중한 인연을 튼튼하게 이어가고 있는 (주)헤인의 캐터필라 해상엔진 대리점인 (주)동아디젤을 찾았다.

(주)헤인 해상엔진팀 이용기 대리과 (주)동아디젤 송진석 사장 (왼쪽부터)



● 동아디젤은 1983년에 창립한 후 1993년 전국에서 네번째, 부산에서 두번째 헤인 해상엔진 대리점으로 전환했다. 캐터필라 엔진과 발전기 등을 취급하는 동아디젤이 헤인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작년까지 경영을 맡고 있던 조정래 사장님은 경영뿐 아니라 기술력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첫손에 꼽힐 만한 분이었습니다. 기계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자체 발주를 통해 엔진을 들여놓고 연구를 할 정도였지요. 그런 분이 인정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바로 캐터필라 엔진이었습니다. 거기다 판매도 많이 했었고요.”

올 2월부터 새로운 경영자가 된 송진석 사장은 헤인과의 만남을 조정래 전 사장 덕분이라 설명했다. 뛰어난 추진력에 어지간한 기술자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의 기술까지 갖춘, 이른바 양수검장이었던 경영자가 선택했던 캐터필라 엔진. 이렇게 헤인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아디젤은 담당 영업사인 이용기 대리과도 혼치 않은 인연이 있다고 한다.

“제가 입사한 후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담당하고 있는 대리점이 바로 동아디젤입니다. 그게 벌써 8년 전인데, 부산에서 동아디젤이 놀라운 성장을 하는 동안 저도 회사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저와 동아디젤은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일까. 녹록치 않은 8년차 본사 직원을 대하는 송진석 사장의 눈길은 결코 계약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좋은 인간관계는 좋은 결과를 낳는 법이다.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때도 있지만 보일 때도 있다. 동아디젤과 헤인의 경우는 후자였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활발한 영업 덕분에 부

산에서의 캐터필라 엔진의 시장 점유율은 30% 이상이라고 한다. 게다가 작년에는 내수경기 침체와 어업량 감소라는 두 가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디젤의 매출 신장률은 120%를 기록했다고 한다. 도무지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올해에도 최소한 작년 수준의 판매량을 목표로 뛰고 있으며 공장 증설을 위해 이미 160평의 공장부지까지 확보해놓은 상태이다.

사진 촬영을 위해 공장에서 갖가지 포즈를 취해달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보통의 경우 카메라를 들이대면 표정과 몸이 굳는 게 일반적이지만 송진석 사장과 이용기 대리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자연스러운 호흡을 보여줬다.

“입사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은 열정으로 뛰고 있는 게 보여요. 덕분에 본사와 대리점간에 협조가 잘 되고 있죠.” (송진석 사장)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딱 30분만 같이 앉아 있으면 금세 형님 아우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바로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한참 어린 나이인데도 잘 많이 이해해주세요. 죄송스러운 정도로 감사하는 부분이지요.” (이용기 대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본사와 기술력과 판매력을 동시에 갖춘 대리점이 보여주는 하모니는 하루 이틀만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령 보졸레 누보(여름에 탄 포도로 만들어 가을에 마시는 핫포도주)의 신선함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수십 년을 참나무통에서 곱게 묵은, 연륜이 배어 있는 포도주에는 비할 수 없다.

항상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만 목을 매는 사람들에게 헤인과 동아디젤의 깊은 인연은 좋은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글·사진 이형근



## Ingersoll-Rand ABG "Titan326" 세미나 실시

지난 2월 24일 (주)헤인 Ingersoll-Rand 장비영업팀에서는 2004년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한 IR ABG사의 "Titan326" 장비에 대한 장비시연회 및 세미나를 천안공장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60여개 업체에서 140여명의 고객분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제작사인 IR ABG에서 판매 책임자인 Bernd Holz와 서비스 책임자인 Jens Oerke가 세미나에 참여하여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금번 (주)헤인을 통하여 새롭게 판매되는 "Titan326"은 경쟁사 장비와 비교하여 월등한 엔진출력(215마력) 및 최대 10m의 포장 폭과 더불어 장비와 유압시스템을 보호하는 리턴필터와 대용량의 냉각시스템 등 경쟁사 장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장비의 가치와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한 유압식 콕커플링 시스템, 전자동 유압식 트랙션 조절장치 그리고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운전자를 보호하며 유압작동으로 간편해진 반영구적인 강화 PVC 선루프 등에서 IR ABG사의 고객을 위한 섬세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 6 Sigma Green Belt 수료식

(주)헤인은 전략적 경영혁신과 Process 개선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6 Sigma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 30일에 6 Sigma Project로 추진한 "신장비 도입 Process개선(NPI Process Improvement)" 과 "작명 Process 개선(WIP Improvement)" 에 대한 Project 발표와 Project에 참여하였던 9명의 Green Belt에 대한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상기 두 가지 Project에 대한 Green Belt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신장비 도입 후 고객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비/엔진 수리에 대한 신속한 전산작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주)헤인은 6 Sigma를 통한 지속적인 Process 개선을 통하여 보다 더 고객의 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System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주)헤인 남부영업소 개소식 및 장비 전시회

(주)헤인은 지난 2월 26일 경기 남부지역에 위치한 고객 여러분을 보다 더 가까이에서 모시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에 "(주)헤인 경기 남부영업소"를 개소하였다. 금번 "남부영업소"의 개소를 통하여 (주)헤인은 경기 남부지역 고객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사업 파트너로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 남부영업소 개소식에서는 캐터필라 장비 전시회도 함께 마련하여, 개소식에 참여한 많은 고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 경기 남부영업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50-3 헤인 평택 물류사업소내 위치

- 전화 번호 : 031-667-2062/3 (장비 : 이재선 소장, 부품 : 박양균)



## 스키드스티어러 전시회 개최

장비사업본부에서는 지난 1월 28일부터 3일간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300여 골프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골프장비 기자재전에 캐터필라의 스키드러더 및 미니굴삭기를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수요는 많았으나 홍보가 미흡했던 골프장을 대상으로 스키드스티어러더 및 미니굴삭기의 홍보를 한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전시회로 평가된다.



## 엔진사업본부 정년 퇴임 및 환송식

지난 2003년 12월 23일 엔진사업본부 박정환 이사의 정년 퇴임 및 정규중 부장의 환송식이 엔진사업본부에서 거행되었다. 본 행사는 엔진사업본부에서 첫 정년 퇴임을 맞이하는 직원을 위한 뜻깊은 자리였으며,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헤인을 위하여 많은 세월을 고생하신 두 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 캐터필라 발전기 판매 협력사 감사패 증정

지난 2003년 12월 12일, 24일 양일간 (주)헤인 엔진사업본부는 캐터필라발전기의 국내 공급에 많은 공헌을 한 캐터필라발전기 판매 협력사인 (주)코스타파워와 (주)한국기술서비스에게 그동안의 판매 증진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번 감사패 전달식을 통하여 양사는 더욱 더 공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CAT 3456 디젤발전기 출시

캐터필라사는 2004년 전반기까지 3406(300KW~400KW)과 3412(500KW) 발전기의 생산을 중단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된 3456(300KW~500KW) 모델을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친환경적으로 개발된 3456발전기를 (주)헤인에서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친환경적 3456발전기는 제어방식이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뀌었으며, 연료계통이 직접분사방식으로 되어 있어 효율이 증대되고 배기가스 오염도를 최소화하고 있다.

## 캐터필라 산업장비영업팀 신설

(주)헤인 장비사업본부는 2004년부터 캐터필라 산업장비영업팀을 신설하였다. 산업장비영업팀은 전국을 서울 경기, 호남 및 영남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 전담 영업사원을 배정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중대형 장비에 비하여 판매가 취약하였던 산업장비 시장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장비영업팀 신설에 시작으로 헤인은 더욱 다양한 Niche Market을 개발하여 중장비 시장의 선도적 위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 임직원 소식

### 승진을 축하합니다

정비기술팀	부장 김덕현
서울영업본부	차장 문제운
부산영업본부	차장 장덕수
부산영업본부	차장 전병준
퍼킨스/산업용엔진	차장 나승표
총무기획팀	과장 이승일
해상엔진팀	과장 정경환
퍼킨스/산업용엔진	과장 이준호
IR장비영업팀	과장 이은구
산업장비영업팀	과장 이남권
6시그마팀	과장 송선미
서울영업본부	과장 원종원
해상엔진팀	대리 이옥선
부산영업본부	대리 강영훈
부산영업본부	대리 양성욱
광주지점	대리 조덕형
장비마케팅팀	대리 김진수

### 탄생을 축하합니다

2003년 12월 15일	제천지점 이재광사원 득녀
2003년 12월 27일	서울영업본부 백정기주임 득남
2004년 2월 1일	장비마케팅팀 정호영과장 득녀

### 임사를 축하합니다

임대영업팀	강범구
금융무역팀	심현정
총무기획팀	김기덕
부품기획/마케팅팀	이준현
서울영업본부	유성룡

# 독자나눔터

장비해결사 김규경 주임의 현장 경험담 중 "잘 배우고 갑니다", 즉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40분 일하고, 10분 청소로 다른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으며, 캐터필라의 우수성 때문에 15년 동안 사용하던 국산장비를 과감하게 교체한 화성중기 이병문 사장의 용기에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주)헤인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

-강원도 삼척시 원당동 122-3 현대아파트 104-1706 안두진

평소 8개 정도 사외보를 받아보고 있는 제게 우연히 접하게 된 헤인 사보는 신선한 차별화를 느끼게 했습니다. 헤인의 사외보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주되게 다루면서도 독자들이 중장비란 특수영역에 호기심을 갖게끔 쉽게 쓰여져 재미와 정보 모두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지면이 너무 적다는 것이겠지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헤인의 사외보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샘터마을 화성아파트 102-1804 박영경

CAT를 애용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헤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낙도인 이곳까지 보내주신 목포 K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름다운 간직한 채로 지속적인 발전! 헤인의 꿈은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 농업협동조합 이철호

때론 자사의 장비만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 많다는 인식이 듭니다. 그간 CAT에서 발견된 결함사항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 그리고 그 결과를 다루는 기사도 있었으면 합니다. 헤인이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전남 여수시 중흥동 1165-1 한진정공내 홍현표

지난 2003년, 뭔가 허전한 느낌으로만 연말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헤인 사보를 받아두고 자연스레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사보 느낌은 밥 먹고 송충까지 챙겨 먹은 것 같은 느낌 이랄까요? 훗훗 ^^ 2004년엔 더욱 파이팅 하세요!

-경기 양주시 옥정동 97-3 성림산업 김현아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에게는 캐터

필라 마크가 새겨진 '나이프와 전등세트'를 드립니다.

문의 : 02-3498-4524 이승일 대리(silee@haein.com)

봄이여

나는 통곡하며 살고 있다.  
 나는 마음대충, 생황도 마음대충,  
 만만도 마음대충, 인도도 마음대충  
 그렇게 살기 싫지 않다.  
 나는 모든 일을 배려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있다.  
 어찌 사랑받았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고 사귀고 있고,  
 꽃향기에도 통곡하며 보고 있다.  
 내 아들딸들의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있고,  
 아내와도 세월과 사랑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있다.  
 하느님여 통곡하며 믿어 준다.  
 죄도 통곡하며 짓고 있다.  
 - 최인호의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중에서 -



2 0 0 4

S P R I N G

애 독 자 카 드

●두개의 그림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5곳을 찾아 표시해 주세요. 보내주시는 분은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독자나눔터의 신고 싶은 사연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유효기간 \_ 무한정  
서울시서초우체국  
승인 제1823호

(주)헤인 사보편집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1 3 7 - 1 3 0